

인권정보자료실
R1.1.17

월간2면 발행, 일·월요일 제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인권하루소식

제1887호 ~ 제2006호

합본 17호
(2001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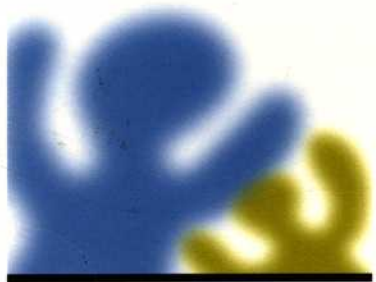
합본 17호

2001년
7월 ~ 12월

4·3 진실규명 어디까지 왔나 발포명령자, 미국책임 등 규명 안돼

제주 4·3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가 4·3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논의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상 4·3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 것은 87년 6월학생 이후 20년 가까이 4·3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4·3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열린 4·3 50주년 기념식에서 4·3의 진실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지금도 꾸준히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4·3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4·3에 대한 조사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4·3의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4·3을 국제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정보자료
R1.1.17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제1887호 - 제2006호)

2002. 3

차례

부록 인권하주소식 합본 17호 색인

/257

제1887호(2001. 7. 3)

/1

- 1면 · 재소자폭행 목인, 규율 잡기 -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사이 폭행 방지
·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한통계약직 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 발행
- 2면 ·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⑤ 인권교육! 무관심은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
- 3면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제1888호(2001. 7. 4)

/4

- 1면 · 치료라곤 진통제, 계보린... -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
- 2면 ·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⑥ 외국인 이전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제1889호(2001. 7. 5)

/6

- 1면 · 불법체류이주노동자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2·3면 · <기획>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⑦(끝) 국가인권위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3면 ·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제1890호(2001. 7. 6)

/9

- 1면 · ‘집회의 자유’ 뿌리째 뽑힌다 -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만화사랑방> “불법체류자들을 잡아라!!”
- 2면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제1891호(2001. 7. 7)

/11

- 1면 ·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인정, ‘유서대필’은? - 강기훈 씨 사건 규명돼야
·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2면 ·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건강한 노동·건강한 세상’ - 노동건강연대 창립

제1892호(2001. 7. 10)

/13

- 1면 ·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
- 2면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제1893호(2001. 7. 11)

/15

- 1면 ·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2면 ·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 파괴 발상 -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

제1894호(2001. 7. 12)

/17

- 1면 ·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전화번호 모두 파악
- 2면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
-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이사회 정상화 될 듯

제1895호(2001. 7. 13)

/19

- 1면 ·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 민변, "캐리어 노동절 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만화사랑방> 장마철 '집시법' 집구석... 참가인원 제한추진, 10분초과 구속...
- 2면 · <기획>한국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나?

제1896호(2001. 7. 14)

/21

- 1면 ·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 속임수" - 전공련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마라'
-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2면 · '글리백' 가격인하 요구 -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해외소식> 말레이시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제1897호(2001. 7. 17)

/23

- 1면 ·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김철준 변호사, 레미콘 노조 인정 촉구 단식 중
- 2면 ·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 - 거듭되는 법원 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7월 16일

제1898호(2001. 7. 19)

/25

- 1면 ·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여성 근로기준 약화 -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 2면 ·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 세계화·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 폭력·부당해고·구속으로 파업 장기화

제1899호(2001. 7. 20)

/27

- 1면 · "박영두폭행 가담·은폐자 처벌" -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 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33개 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 <만화사랑방> 감옥의문사 진상 - '구타'에 의한 사망이랍니다
- 2면 · <기획>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 아파도, 배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재소자 치료권

제1900호(2001. 7. 21)

/29

- 1면 ·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험" - 헌법재판소, 수용시설 기준 제시
-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2면 · <해외소식>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
- "실효성있는 강제장치 마련할 때" -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제1901호(2001. 7. 24)

/31

- 1면 ·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 김천·청송,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2면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7월 23일

제1902호(2001. 7. 25)

/33

- 1면 ·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 벗다 -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2면 ·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 사회단체·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

제1903호(2001. 7. 26)

/35

- 1면 ·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 이탈리아 대사관 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
- <인터뷰>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 ... G8정상회담 반대 시위 참가
- 2면 ·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제1904호(2001. 7. 27)

/37

- 1면 ·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 경찰, 이동권 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만화사랑방> G8, 그들은 지구를 향해 총을 쏘다... 타앙!
- 2면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④, 작업과 교육 -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제1905호(2001. 7. 28)

/39

- 1면 ·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삼미특수강 관련 판결에 대해
- 2면 · <해외소식>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제1906호(2001. 7. 31)

/41

- 1면 ·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 노사정위에선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 2면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발전산업노조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7월 30일

제1907호(2001. 8. 1)

/43

- 1면 ·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2면 · 이달의 인권(2001년 7월)

제1908호(2001. 8. 2)

/45

- 1면 ·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 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 2면 · '인권단체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제1909호(2001. 8. 3)

/47

- 1면 ·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몫" - 국내 활동가등,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 <만화사랑방> 법원 먹구름, 삼미특수강 노동자에만 비 뿌려
- 2면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⑤ 식사와 구매 -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나나?"

제1910호(2001. 8. 4)

/49

- 1면 ·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2면 · <해외소식> 석유노련 OXY, 우와족 '습격' 실패 -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제1911호(2001. 8. 7)

/51

- 1면 ·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채
- 2면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8월 6일

제1912호(2001. 8. 8)

/53

- 1면 · 대한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2면 ·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제1913호(2001. 8. 9)

/55

- 1면 ·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2면 · 노동사무소, '시정명령' 후에 뭘 했나? - "대송택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제1914호(2001. 8. 10)

/57

- 1면 · 놀부 심보 따로없네! - 유진레미콘, 사회단체들에 공문 "레미콘노조는 개인사업자 단체"
· <만화사랑방> 정보통신윤리위, 통신업체에 "니가 책임지고 인터넷 사이트 못오게 하쇼잉"
- 2면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⑥ 민영교도소 - 종교계 · 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제1915호(2001. 8. 11)

/59

- 1면 · '앵벌이' 필리핀 노동자, 한국의 '설움' -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2면 · <해외소식>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제1916호(2001. 8. 17)

/61

- 1면 · '소리바다' 끝내 기소 -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만화사랑방> 네티즌 방망이, "비열한 검열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
- 2면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제1917호(2001. 8. 18)

/63

- 1면 ·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를 - 정통윤, '불온' 발미 인터넷 검열
·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2면 · <해외소식>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1918호(2001. 8. 21)

/65

- 1면 ·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 학생들 요구에 자퇴 · 전학 · 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2면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8월 20일

제1919호(2001. 8. 22)

/67

- 1면 ·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 군속-오류 · 삼일-라이너스-대송택, TKP 노동자
- 2면 ·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제1920호(2001. 8. 23)

/69

- 1면 ·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도
- 2면 ·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배상하라" -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제1921호(2001. 8. 24)

/71

1면 ·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 <만화사랑방> 조중동, 남북최초민간교류 물어뜯기

2면 · <기획>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 ‘국민의 감시’ 아래 교정시설

제1922호(2001. 8. 25)

/73

1면 ·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속에 출범 희망”

·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2면 · <해외소식>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펜실베니아 주법원, 다시 검찰 손 들어줘

· 외노협 등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제1923호(2001. 8. 28)

/75

1면 ·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해도 안 내겠다”

· 정통윤,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구국의 소리’, 불건전 정보로 심의·결정

2면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8월 27일

제1924호(2001. 8. 29)

/77

1면 · 노조파괴 공작비 120만원에 얽힌 사연 - 동작구 1번 마을버스 파업 73일째

2면 · 여의도를 올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제1925호(2001. 8. 30)

/79

1면 ·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

· 정보운동 입문 기획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

2면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

·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을 위한 것” - ‘장애인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

별지 ·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제1926호(2001. 8. 31)

/82

1면 ·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만화사랑방> 국가정보원, 아직도 불법사찰을! ... 노래단체 ‘우리나라’

2면 ·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제1927호(2001. 9. 1)

/85

1면 ·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

·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

2면 · 십년 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제1928호(2001. 9. 4)

/87

1면 ·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있었다” - 사건지휘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검토

·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

2면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귀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9월 3일

제1929호(2001. 9. 5)

/89

1면 · 구타 은폐, 프락치공작 전모공개 요구 - 경찰청 항의방문, 김준배 씨 사망 관련 서한 전달

· <새로 나온 자료집>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 자료집 I·II

2면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문제에 높은 관심 ... 서방국가들 소극적

·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제1930호(2001. 9. 6)

/91

1면 ·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2면 ·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 뿐

· 한 레미콘 노동자의 애절한 죽음 -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

제1931호(2001. 9. 7)

/93

1면 ·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만화사랑방> 구사대, “레미콘 노동자’ 패는 중이외다”

2면 · <기고>의약품과 특허 ...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제1932호(2001. 9. 8)

/95

1면 ·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2면 ·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제1933호(2001. 9. 11)

/97

1면 ·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 관련 현안 해결 요구

2면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될...

·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9월 10일

제1934호(2001. 9. 12)

/99

1면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택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2면 ·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국가인권위, 인권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 인권단체연대회의, 인권위 성공 위해 적극 대처

제1935호(2001. 9. 13)

/101

- 1면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단행 ‘대화의 문’
2면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제1936호(2001. 9. 14)

/103

- 1면 · ‘등급보류 위헌’ 그 후... - 영화등급위원회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논의
· <만화사랑방> 미국을 지킬 자, 누구인가?
2면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③ “투쟁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
·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3면 ·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제1937호(2001. 9. 15)

/106

- 1면 ·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2면 · <해외소식> 테러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

제1938호(2001. 9. 18)

/108

- 1면 ·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강제 진압 - 경찰, “민감한 때 기자회견 안 된다” 사전압력
· <새로 나온 자료집>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2면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주간인권호름> 2001년 9월 10일~9월 17일

제1939호(2001. 9. 19)

/110

- 1면 ·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2면 · <기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 없다”

제1940호(2001. 9. 20)

/112

- 1면 ·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2면 ·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제1941호(2001. 9. 21)

/114

- 1면 · <기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결면 걸린다”
· <만화사랑방> 조선일보, 영화 ‘애기섬’ 색깔 시비

- 2면 ·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
· “노동조건 후퇴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제1942호(2001. 9. 22)

/116

- 1면 ·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 임박 -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2면 ·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아프간 민중의 삶 악화 - 굶주림 뒤로 구호단체들 출국
·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

제1943호(2001. 9. 25)

/118

- 1면 · 시그네틱스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2면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주간인권호름> 2001년 9월 17일~9월 24일

제1944호(2001. 9. 26)

/120

- 1면 · <기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③ “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
2면 ·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 (주)대용, CCTV철거 -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제1945호(2001. 9. 27)

/122

- 1면 · 비정규노동자, 투쟁 계속된다 -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회금지 통고 받아 -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
·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제2차 연대집회
2면 · <기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제1946호(2001. 9. 28)

/124

- 1면 ·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2면 · <기획>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제1947호(2001. 9. 29)

/126

- 1면 ·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 해고
· <논평> 헌법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2면 · 이달의 인권 (2001년 9월)

제1948호(2001. 10. 5)

/129

- 1면 · “말실인선 지겹다” 1인 시위 돌입 -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만화사랑방> 신부와 의 약속 어기고, 정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2면 ·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 기소
·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제1949호(2001. 10. 6) /131

- 1면 ·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2면 ·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항명죄·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해외소식> 아프가니스탄, 20여년의 고통 - 미국의 공습 압박, 상황 날로 악화

제1950호(2001. 10. 9) /133

- 1면 ·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2면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강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1년 9월 24일~10월 8일

제1951호(2001. 10. 10) /135

- 1면 · “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인권위원명단
- 2면 ·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중용당해 -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 돌입
·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 한 목소리

제1952호(2001. 10. 11) /137

- 1면 · 정리해고 후,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금속연맹, 대우차 해고자 실태 조사결과 발표
- 2면 ·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반전·평화’ 염원 -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제1953호(2001. 10. 12) /139

- 1면 ·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 정부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만화사랑방>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없애
- 2면 ·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 ‘육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
· 국보법 사건, 첫 불구속 수사 -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제1954호(2001. 10. 13) /141

- 1면 · <해외소식> ‘테러박멸’ 논리 기본권 홀대- 미국... 감청 강화,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
- 2면 ·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 지역공대위 속속 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ILO조사단, 단 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제1955호(2001. 10. 16) /143

- 1면 ·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2면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주간인권호름> 2001년 10월 8일~10월 15일

제1956호(2001. 10. 17) /145

- 1면 · 재소자들은 권리구제는? -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행정심판이란?
- 2면 · 국보법 폐지 목소리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앞 1인 시위
·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제1957호(2001. 10. 18) /147

- 1면 ·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책읽기>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 여성의 눈으로 노동운동사 재서술
- 2면 ·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제1958호(2001. 10. 19) /149

- 1면 ·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 “육인 채 조사 받는 건 국민기본권 침해” 주장
· <만화사랑방> 피의자 접견권 묵살해온 국가정보원, 배상 결정
- 2면 ·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 함께하는 시민행동, 무료공개·배포

제1959호(2001. 10. 20) /151

- 1면 ·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 ‘과건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돼’
· <논평> 인터넷 검열, 묵인할 수 없다
- 2면 · <해외소식> 무기 범람, 인권 재앙 - 미·러, 인권침해 알면서도 아프간 반군 군사원조
·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
· 단 위원장 결국 기소

제1960호(2001. 10. 23) /153

- 1면 · 교칙, “금지·처벌·제한...” -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인터넷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2면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억압적인가
· <주간인권호름> 2001년 10월 15일~10월 22일

제1961호(2001. 10. 24)

/155

- 1면 ·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2면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2여고 김모 학생(16세)

제1962호(2001. 10. 25)

/157

- 1면 ·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발미 출판인 구속 -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2면 ·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부당" 판결-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

제1963호(2001. 10. 26)

/159

- 1면 ·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 2면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② 학생회는 겁데기
· <만화사랑방> 미국, 아프간 공습하면서 식량 공급 제스처

제1964호(2001. 10. 27)

/161

- 1면 · 안양·청송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 "교도관이 교발장 제출 제지"
·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2면 ·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 엠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제1965호(2001. 10. 30)

/163

- 1면 ·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 공공·금융기관 개인 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고등법원,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만 책임 물어
- 2면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10월 29일

제1966호(2001. 10. 31)

/165

- 1면 ·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2면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돼
·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 고발

제1967호(2001. 11. 1)

/167

- 1면 · "사형집행은 법에 의한 살인" -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어린이와 함께 반전평화 서명을!
- 2면 ·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제1968호(2001. 11. 2)

/169

- 1면 ·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만화사랑방> 유명집회신고
- 2면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 (끝) 선도규정 :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제1969호(2001. 11. 3)

/171

- 1면 ·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2면 ·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 "수사 등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안돼"
· 8년 제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제1970호(2001. 11. 6)

/173

- 1면 ·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2면 · <신운동옥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11월 5일

제1971호(2001. 11. 7)

/175

- 1면 · 내 지문을 돌려다오 -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
· <인터뷰> (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 2면 ·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DJ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 올 노동운동 구속자 10년 만에 최대 수치

제1972호(2001. 11. 8)

/177

- 1면 ·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2면 · 대법원, "알몸 수색은 위법" -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 한통계약직 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

제1973호(2001. 11. 9)

/179

- 1면 ·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만화사랑방> 한국 가서 난민신청하게 '서류 좀 발급해주세요'

- 2면 ·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제1974호(2001. 11. 10)

/181

- 1면 ·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
- 2면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제1975호(2001. 11. 13)

/183

- 1면 ·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 원로 감정인 증언, 윤치고 씨 재판 새 국면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2면 ·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 권리 선언’ 채택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11월 12일)

제1976호(2001. 11. 14)

/185

- 1면 · 고용직 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2면 ·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

제1977호(2001. 11. 15)

/187

- 1면 ·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예고 -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 통과로 돌진
· <클릭 인권정보자료> ‘통계로 보는 인권 -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 2면 ·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 디지털 말 이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 강행

제1978호(2001. 11. 16)

/189

- 1면 ·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 테러방지법 줄속 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만화사랑방> 테러방지법 ... “반지건 목걸이건 간에 국민들 옥죄는 거면 상관없슈!”
- 2면 · 긴급 인터뷰 :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제1979호(2001. 11. 17)

/191

- 1면 ·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존’ -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2면 · <기고>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류미경 - WTO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제1980호(2001. 11. 20)

/193

- 1면 ·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중
· 강용주 씨, 보안관찰법 체포
- 2면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11월 19일

제1981호(2001. 11. 21)

/195

- 1면 ·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2면 ·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 세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국적전환 요구는 ‘제2 사상전향’ - KIN, 주일본 대사관에 공식 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제1982호(2001. 11. 22)

/197

- 1면 ·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클릭 인권정보자료> A Guide to Human Rights :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
- 2면 · <현장그리기>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 제8차 이동권 집회 ‘저상버스’ 시승기
·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

제1983호(2001. 11. 23)

/199

- 1면 ·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만화사랑방> “내 지문 내놔!”
- 2면 ·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제1984호(2001. 11. 24)

/201

- 1면 ·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2면 ·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 구속

제1985호(2001. 11. 27)

/203

- 1·2면 ·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 산적한 과제 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3면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것이 내 꿈이에요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11월 26일

제1986호(2001. 11. 28)

/206

- 1면 ·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 촉구 -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2면 ·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 에바다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농성 돌입

제1987호(2001. 11. 29) /208

- 1면 ·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 법안저지 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
· <자료읽기>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
- 2면 ·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숙 농성 -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제1988호(2001. 11. 30) /210

- 1면 ·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 현재, “정부 수립 이전 해외 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만화사랑방> 한나라당사앞 “쌀값보장! 주5일근무!”
- 2면 ·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제1989호(2001. 12. 1) /213

- 1면 ·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 2면 ·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제1990호(2001. 12. 4) /215

- 1면 ·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2면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12월 3일

제1991호(2001. 12. 5) /217

- 1면 · 현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2면 ·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제1992호(2001. 12. 6) /219

- 1면 ·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
- 2면 ·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제1993호(2001. 12. 7) /221

- 1면 · 건강보험, 국민 부담만 경중 -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
· <만화사랑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최저생계비에 절망한 장애인
- 2~4면 ·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

제1994호(2001. 12. 8) /225

- 1면 ·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 ‘홍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2면 ·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제1995호(2001. 12. 11) /227

- 1면 ·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 <기자의 눈> -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 2면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12월 10일
- 3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인권

제1996호(2001. 12. 12) /230

- 1면 ·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997호(2001. 12. 13) /232

- 1면 ·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 <클릭! 인권정보> 공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증언 - 전 중앙정보부원의 양심선언(최종선)
- 2면 · 2천호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제1998호(2001. 12. 14) /234

- 1면 ·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만화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백서 - 최종길 교수 자살조작 바이러스 발견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제1999호(2001. 12. 15) /236

- 1면 · 제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 조선적 제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⑤ 1997년을 돌아본다! -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제2000호(2001. 12. 18) /238

- 1면 ·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 거부
-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 돌입
- 2면 ·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주간인권호름> 2001년 12월 11일~12월 17일
- 3면 ·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교육
- 4면 ·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①

제2001호(2001. 12. 19) /242

- 1면 ·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2면 ·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⑦ 여성의 인권
- 3면 ·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제2002호(2001. 12. 20) /245

- 1면 · 진주총기사건, 경찰 주장 엇갈려 -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
- <책읽기>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⑥ 1998년을 돌아본다! -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제2003호(2001. 12. 21) /247

- 1면 ·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만화사랑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군, "조국을 지키는 길이 하나 뿐인가요?"
- 2면 · 검열반대 60일 릴레이 단식 마무리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인터뷰>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
-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 레미콘 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3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⑦ 1999년을 돌아본다! -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제2004호(2001. 12. 24) /250

- 1면 ·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⑧ 2000년을 돌아본다! -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제2005호(2001. 12. 25) /252

- 1면 ·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 "지문수집 무효"
-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2면 ·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⑨ 2001년을 돌아본다! - 공안세력의 부활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제2006호(2001. 12. 27) /254

- 1면 · <2001년 중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2면 ·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3면 · <만화> '산타'와 루돌프의 좌충우돌 2001년 인권 10대뉴스

'산타'와 '작'총무들 2001년 인권 10대뉴스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색인

색인 찾아보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노동 /258-261

- 비정규노동
- 관련사례
- 레미콘
- 한통계약직
- 노동의 권리
- 노동조건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
- 관련사건
- 교수노조
- 공무원

사회복지/사회보장 /261

건강권 /261

교육권 /261

- 사학비리

과학·문화 /262

농민 /262

<시민·정치적 권리>

사형제도 /262

고문·가혹행위 /262-263

- 경찰폭력
- 군폭력

신체의자유 /263

- 불심검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63

-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변호인 접견권

프라이버시 /263-264

- 전자신분증
- 사찰/도청/감청
- 지문날인

사상·양심의 자유 /264-266

- 국가보안법
- 관련사건
- 조작간첩 사건
- 보안관찰법

- 장기수·양심수
-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 /266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267

-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267-268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 한총련 사건

<소수자>

이주노동자 /268

난민 /269

해외동포 /269

여성 /269

-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 여성노동권

어린이·청소년 /269

장애인 /270

- 고용
- 이동권

동성애자 /270

<국제>

유엔인권기구 /270

-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

국제인권회의 /270-271

- 인종차별철폐대회

지역인권상황 /271

- 아시아
- 미국
- 중남미

<특별주제>

국가기구와 인권 /272

- 국가인권위원회

시설수용자와 인권 /273

- 에바다 사건

- 양지마을 사건

감옥 수용자와 인권 /273-274

- 사회보호법
- 사망사건

신자유주의와 인권 /274

- 민영화

과거청산/불처벌 /274-275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의문사

테러방지법 /275

인권교육 /275

평화 /275-276

국내·외 인권단체 /276

<기획> /276-278

- 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
- 한국 감옥의 현실
-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주소를 진단한다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2천호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 2천호 기획 '우리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 2천호기획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인권10대뉴스 /278

논평 /278-279

인권이야기 /279

만화사랑방 /279-280

인권정보자료 /280

주간인권호름 /281

이달의 인권 /281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노동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01. 7. 3 3면 1887호) /3
-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 벗다 -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01. 7. 25 1면 1902호) /33
- <만화사랑방> 법원 먹구름, 삼미특수강 노동자에만 비 뿌려(01. 8. 3 1면 1909호) /47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01. 8. 28 2면 1923호) /76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01. 9. 25 2면 1943호) /119
-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01. 11. 9 1면 1973호) /179

▷비정규노동

- ‘비정규직 대학살’ 실태보고서 나와 - 폭력·부당해고·구속으로 파업 장기화(01. 7. 19 2면 1898호) /26
-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나서야’ - 민주노총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01. 9. 11 1면 1933호) /97
-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노예제”(01. 9. 27 1면 1945호) /122
-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01. 10. 6 1면 1949호) /131
- <인터뷰> (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01. 11. 7 1면 1971호) /175

▷▷ 관련 사례

-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01. 7. 5 3면 1889호) /8
-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 외면 - 민변, “캐리어 노동절 폭력에 회사가 개입”(01. 7. 13 1면 1895호) /19
- 대한송유관공사, 파견직89명 계약해지 - ‘고용불안 안된다’ 노동사무소 지정명령에 도전(01. 8. 8 1면 1912호) /53
- 노동사무소, ‘시정명령’ 후 뭘 했나? - “대송택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01. 8. 9 2면 1913호) /56
- “기구한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 군속-오륜·삼일-라이너스-대송택, 버려진 TKP 노동자(01. 8. 22 1면 1919호) /67
-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01. 8. 29 2면 1924호) /78
- <기획>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 대송택, “TKP가 내 일터다”(01. 9. 12 1면 1934호) /99
- <기획>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③
 -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01. 9. 14 2면 1936호) /104
-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 해고(01. 9. 29 1면 1947호) /126
-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돼’(01. 10. 20 1면 1959호) /151
-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01. 11. 3 1면 1969호) /171

▷▷▷ 레미콘

-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01. 7. 17 1면 1897호) /23
-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김철준 변호사, 레미콘 노조 인정 촉구 단식 중(01. 7. 17 1면 1897호) /23
-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 사회단체·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01. 7. 25 2면 1902호) /34
- 늘부심보 따로없네! - 유진레미콘, 사회단체들에 공문 “레미콘노조는 개인사업자 단체”(01. 8. 10 1면 1914호) /57
-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01. 9. 6 1면 1930호) /91
- 한 레미콘 노동자의 애절한 죽음 - 민주노총·건설연맹, 부당노동행위 근절 촉구(01. 9. 6 2면 1930호) /92
- <만화사랑방> 구사대, “레미콘 노동자’ 패는 종이외다”(01. 9. 7 1면 1931호) /93
-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 레미콘 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01. 12. 21 2면 2003호) /248
-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01. 12. 25 1면 2005호) /252

▷▷▷ 한통계약직

-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 한통계약직 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 발행(01. 7. 3 1면 1887호) /1
-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 480여명 징계, 4만여 한통노동자에 2개월임금 반납요구(01. 8. 23 1면 1920호) /69
- <기획>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해고자에게 달린 ‘대화의 문’(01. 9. 13 1면 1935호) /101
-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01. 9. 14 2면 1936호) /104
- 3백30일 파업투쟁, 날개 달았다 - 한통계약직 투쟁에 1천명 실천단 동참(01. 11. 8 2면 1972호) /178

▷노동의 권리

-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과기, 정리해고 ‘촉진’(01. 7. 28 1면 1905호) /39
-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삼미특수강 관련 판결에 대해(01. 7. 28 1면 1905호) /39
- 노유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01. 8. 17 2면 1916호) /62
-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01. 10. 6 1면 1949호) /131
- 정리해고 후,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금속연맹, 대우차 해고자 실태 조사결과 발표(01. 10. 11 1면 1952호) /137
-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01. 10. 12 2면 1953호) /140

▷노동조건

-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01. 7. 11 2면 1893호) /16
- 여성 근로기준 약화 -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01. 7. 19 1면 1898호) /25
-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01. 9. 1 1면 1927호) /85
-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01. 9. 1 1면 1927호) /85
-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01. 9. 1 2면 1927호) /86
-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01. 9. 5 2면 1929호) /90
- “노동조건 후퇴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01. 9. 21 2면 1941호) /115
-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 임박 - 회사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01. 9. 22 1면 1942호) /116
- (주)대용, CCTV철거 - 작업장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확산 계기(01. 9. 26 2면 1944호) /121
-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01. 11. 7 2면 1971호) /176

- 고용직 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 행자부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01. 11. 14 1면 1976호)/185
- 노동자·농민 손잡고 노상농성 - "쌀값보장·주5일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01. 11. 29 2면 1987호)/209
-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 안전규정 무시 이윤추구 급급(01. 11. 29 2면 1987호) /209

▷노동조합결성권/ 파업권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발전산업노조(01. 7. 31 2면 1906호) /42
-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 현안 해결 요구(01. 9. 11 1면 1983호) /97
-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01. 9. 20 1면 1940호)/112
- DJ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집중 - 노동운동 구속자 10년만에 최대(01. 11. 7 2면 1971호) /176

▷▷관련 사건

- 명월관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 '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01. 7. 5 3면 1889호) /8
-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01. 7. 17 1면 1897호)/23
-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01. 7. 25 2면 1902호) /34
-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 사회단체·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01. 7. 25 2면 1902호) /34
- 놀부심보 따로없네! - 유진레미콘, 단체들에 공문 "레미콘노조, 개인사업자 단체"(01. 8. 10 1면 1914호)/57
- 한통, 114분사 반대자에 보복 - 480여명 징계, 4만여 노동자 2개월임금 반납요구(01. 8. 23 1면 1920호) /69
- 노조파괴 공작비 120만원에 얽힌 사연 - 동작구 1번 마을버스 파업 73일째(01. 8. 29 1면 1924호) /77
-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01. 8. 31 1면 1926호) /82
-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 뿐(01. 9. 6 1930호) /92
- 시그네틱스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싶다" - 노조협오증이 부른 또다른 장기파업(01. 9. 25 1면 1943호)/118
-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어야 돼!" -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 해고(01. 9. 29 1면 1947호) /126
- <만화사랑방> 신부와의 약속 어기고, 정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01. 10. 5 1면 1948호) /129
-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01. 10. 5 2면 1948호) /130
-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중용당해 -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요구 농성(01. 10. 10 2면 1951호)/136
- ILO조사단, 단 위원장 특별면회 예정(01. 10. 13 2면 1954호) /142
-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01. 10. 17 2면 1956호) /146
- 단 위원장 결국 기소(01. 10. 20 2면 1959호) /152
-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01. 10. 25 2면 1962호) /159
-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01. 11. 6 1면 1970호) /173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01. 11. 13 1면 1975호) /183
-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정 -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중(01. 11. 20 1면 1980호) /193
- "항공사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 법원, "실질교섭 진행했다면 가능"(01. 11. 24 2면 1984호) /202
-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 구속(01. 11. 24 2면 1984호) /202
-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01. 12. 4 1면 1990호) /215

▷▷▷교수노조

-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01. 9. 7 1면 1931호) /93

- "총·학장들은 교수노조 막아내라" -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01. 11. 9 2면 1973호) /180
- <논평>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01. 11. 10 1면 1974호) /181

▷▷▷공무원

-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 속임수" - 전공련위원장, '국민정서 빌미 미루지 말라'(01. 7. 14 1면 1896호)/21
-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 노사정위에선 논의, 행자부는 주동자 처벌(01. 7. 31 1면 1906호) /41
-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 지역공대위 속속 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01. 10. 13 2면 1954호) /142

사회복지/사회보장

-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 '생산적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연대한마당 열린다(01. 10. 6 1면 1949호)/131
- '10월 26-28일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조직위 발족(01. 10. 12 2면 1953호) /140
-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01. 10. 30 1면 1965호) /164
-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01. 12. 4 1면 1990호) /215
- <만화사랑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최저생계비에 절망한 장애인(01. 12. 7 1면 1993호) /221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01. 12. 11 2면 1995호) /228
-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01. 12. 13 1면 1997호) /232

건강권

- 치료라곤 진통제, 게보린... -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01. 7. 4 1면 1888호) /4
- '글리백' 가격인하 요구 -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01. 7. 14 2면 1896호) /22
- <기획>한국 감옥의 현실 ③
- 머리 아파도, 배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재소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없다"(01. 7. 20 1면 1899호) /28
-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 정혜주(민중의료연합공공의약팀)(01. 9. 7 2면 1931호) /94
- 특허에 의한 살인 중단하라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01. 9. 20 2면 1940호) /113
-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01. 10. 12 1953호) /139
- <논평>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01. 10. 13 1면 1954호) /141
-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 글리백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01. 12. 5 2면 1991호) /218
- 건강보험, 국민 부담만 경중 - 건강보험 강화 공대위 발족(01. 12. 7 1면 1993호) /221
-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01. 12. 12 1면 1996호) /230
-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01. 12. 21 1면 2003호) /247

교육권

▷사학비리

-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01. 12. 6 2면 1992호) /220

과학 · 문화

-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 벗다 -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01. 7. 25 1면 1902호) /33
- ‘소리바다’ 끝내 기소 -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01. 8. 17 1면 1916호) /61

농민

-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01. 11. 14 2면 1976호) /186
- 노동자 농민 노상농성 -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01. 11. 29 2면 1987호) /209

시민 · 정치적 권리

사형제도

- “사형집행은 법에 의한 살인” -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01. 11. 1 1면 1967호) /167

고문 · 가혹행위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01. 7. 6 2면 1890호) /10
- “박영두폭행 가담·은폐자 처벌” - 인권단체연대회의 결의, 공소시효 배제촉구(01. 7. 20 1면 1899호) /27

▷경찰폭력

-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 경주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01. 7. 10 1면 1892호) /13
-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01. 7. 11 1면 1893호) /15
- 경찰, 맘대로 핸드폰 추적 -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전화번호 모두 파악(01. 7. 12 1면 1894호) /17
-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 외면 - 민변, “캐리어 노동절 폭력에 회사 개입”(01. 7. 13 1면 1895호) /19
-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하라 - 이태리 대사관앞 반세계화집회, G8해체 요구(01. 7. 26 1면 1903호) /35
-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있었다” - 지휘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검토(01. 9. 4 1면 1928호) /87
-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01. 9. 4 1면 1928호) /87
- 구타은폐, 프락치공작 공개 요구 - 경찰청 항의, 김준배 사망 관련 공개서한 전달(01. 9. 5 1면 1929호) /89
- 롯데호텔 파업진압, 국가배상 판결 -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 뿐(01. 9. 6 2면 1930호) /92
-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 ‘홍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01. 12. 8 1면 1994호) /225
- 진주총기사건, 경찰 주장 엇갈려 - “다른 조치 불가능했나?” 의문 여전(01. 12. 20 1면 200호) /245

▷군폭력

- “군대가 내 아들 두번 죽였다” -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 농성(01. 9. 19 1면 1939호) /110

신체의 자유(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 ‘테러박멸’ 논리, 기본권 홀대 - 미국...감청 강화,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01. 10. 13 1면 1954호) /141
-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부당” - 법원, “재범 위험성, 고도의 개연성 필요”(01. 10. 25 2면 1962호) /158
-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01. 10. 27 1면 1964호) /161

▷불심검문

-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01. 7. 11 1면 1893호) /15
-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01. 11. 30 2면 1988호) /21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기획> 한국감옥의 현실② 재소자 청원, 소송 가능한가? - 누가 전과자 말을 믿나?(01. 7. 13 2면 1895호) /20
-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01. 9. 22 1면 1942호) /116
-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 ‘징벌 중 집행’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01. 10. 24 1면 1961호) /155
- 고법,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 손해소송, ‘가족인계의무 소홀’만 책임(01. 10. 30 1면 1965호) /163
-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01. 12. 6 2면 1992호) /220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 검사조사실 포승·수갑 사용 헌법소원 - “묵인 채 조사, 기본권 침해” 주장(01. 10. 19 1면 1958호) /149
- 대법원, “알몸 수색은 위법” -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01. 11. 8 2면 1972호) /178
-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01. 12. 12 1면 1996호) /230

▷변호인 접견권

-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01. 10. 18 1면 1957호) /147
- <만화사랑방> 피의자 접견권 묵살해온 국가정보원, 배상 결정(01. 10. 19 1면 1958호) /149

프라이버시

-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01. 8. 8 2면 1912호) /54
- 작업장감시 CCTV 철거요구 파업 - (주)대용노조, 노동통제 강화수단에 제동(01. 9. 1 1면 1927호) /85
- <논평>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01. 9. 1 1면 1927호) /85
-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01. 9. 1 2면 1927호) /86
-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01. 9. 5 2면 1929호) /90

-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 임박 - 회사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01. 9. 22 1면 1942호)/116
- (주)대용, CCTV철거 -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01. 9. 26 2면 1944호) /121
-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 함께하는 시민행동, 무료공개·배포(01. 10. 19 2면 1958호) /150
-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 공공·금융기관 개인 정보 시중에 나돌아(01. 10. 30 1면 1965호) /163

▷전자신분증(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등)

- "인권 팔아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01. 7. 5 3면 1889호)/8
-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 강행(01. 11. 15 2면 1977호) /188

▷사찰/ 도청/ 감청

- 경찰, 맘대로 핸드폰 추적 -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전화번호 모두 파악(01. 7. 12 1면 1894호)/17
-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01. 8. 9 1면 1913호) /55
-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01. 8. 9 1면 1913호) /55
- 괴한, 노래단체 엿보다 붙잡히다 - 적어준 직장 연락처, 국정원 구내전화(01. 8. 30 1면 1925호) /79
- <만화사랑방> 국가정보원, 아직도 불법사찰을! ... 노래단체 '우리나라'(01. 8. 31 1면 1926호) /82
-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01. 9. 1 2면 1927호) /86
- '테러박멸' 논리, 기본권 홀대- 미국...감청 강화,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01. 10. 13 1면 1954호) /141
-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 '2001 아시아인터넷 권리선언' 채택(01. 11. 13 2면 1975호) /184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 5개단체 연대기구, 지문날인 반대운동(01. 10. 18 2면 1957호) /148
- 내 지문을 돌려다오 - '지문반대연대', 지문원지 반환청구인 모집 중(01. 11. 7 1면 1971호) /175
-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01. 11. 22 2면 1982호) /198
- <만화사랑방> "내 지문 내놔!"(01. 11. 23 1면 1983호) /199
-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 "지문수집 무효"(01. 12. 25 1면 2005호) /252

사상·양심의 자유

-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 주일영사,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01. 11. 10 1면 1974호) /181
- "조선적, 자유왕래 이뤄져야" - 세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01. 11. 21 2면 1981호) /196
- 국적전환 요구, '제2의 사상전향' - KIN, 주일 대사관에 자유왕래 보장 촉구(01. 11. 21 2면 1981호) /196

▷국가보안법

-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01. 7. 7 1면 1891호) /11
- 말레이시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01. 7. 14 2면 1896호) /22
-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01. 8. 21 1면 1918호) /65
-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말라" -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 추진(01. 10. 11 2면 1952호)/138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01. 10. 17 2면 1956호) /146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01. 10. 25 1면 1962호) /157
-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01. 12. 1 1면 1989호) /213

▷▷관련 사건

- 범청학련 대변인 체포 - 서민노회에 이어 또다시 이적단체 적용(01. 7. 10 1면 제1892호) /13
-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01. 8. 7 1면 1911호) /51
-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01. 8. 11 1면 1915호) /59
- "통일축전 대표단 석방하라" -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사법처리 대상 아니다(01. 8. 23 2면 1920호) /70
- <만화사랑방> 조중동, 남북최초민간교류 물어뜯기(01. 8. 24 1면 1921호) /71
-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01. 8. 25 1면 1922호) /73
-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연행 - 체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01. 10. 9 1면 1950호) /133
-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말라" -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 추진(01. 10. 11 2면 1952호)/138
- 국보법 사건, 첫 불구속 수사 -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01. 10. 12 2면 1953호) /140
-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01. 10. 20 2면 1959호) /152
-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01. 10. 25 1면 1962호)/157
-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01. 10. 27 2면 1964호) /162
- 8년 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01. 11. 3 2면 1969호) /172
-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01. 11. 30 2면 1988호) /211
-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01. 12. 1 1면 1989호) /213
-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01. 12. 6 1면 1992호) /219

▷▷조작간첩 사건

- '조작간첩단 사건', 재심개시 결정 -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 사실 제출(01. 9. 12 2면 1934호) /100

▷보안관찰법

-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 - 거듭되는 법원 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01. 7. 17 2면 1897호) /24
-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안 내겠다"(01. 8. 28 1면 1923호)/75
-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01. 9. 8 2면 1932호) /96
- 강용주 씨, 보안관찰법 체포(01. 11. 20 1면 1980호) /193
-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씨 석방(01. 11. 22 2면 1982호) /198

▷장기수·양심수

- AI, "단위원장 석방 운동 펼치겠다"(01. 10. 25 2면 1962호) /159
- 병역거부자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 엠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01. 10. 27 2면 1964호) /162
- DJ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 노동운동 구속자 10년 만에 최대(01. 11. 7 2면 1971호)/176

▷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 국내 활동가등,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01. 8. 3 1면 1909호) /47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01. 8. 7 2면 1911호) /52
- 한양대 법대 헌법포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01. 9. 14 3면 1936호) /105
-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 여호와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01. 9. 15 1면 1937호) /106
-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01. 10. 6 1면 1949호) /131
-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01. 10. 6 2면 1949호) /132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광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01. 10. 9 1950호) /134
- 정부, ‘병역거부권’ 안팎 판 소리 - 유엔인권위 결의 찬성, ‘대체복무’ 불가발표(01. 10. 26 1면 1963호) /159
- 병역거부자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 엠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01. 10. 27 2면 1964호) /162
-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 거부(01. 12. 18 1면 2000호) /238
- <만화사랑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군, “조국 지키는 길 하나 뿐인가요?”(01. 12. 21 1면 2003호) /247
-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01. 12. 22 1면 2004호) /250

표현의 자유

- ‘국보법, 정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 민예총 · 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01. 9. 8 1면 1932호) /95
-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 영화등급위원회 성격, 등급의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01. 9. 14 1면 1936호) /103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01. 9. 18 2면 1938호) /108
-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01. 9. 20 1면 1940호) /112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

-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01. 7. 7 1면 1891호) /11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01. 7. 10 2면 1892호) /14
- 안티포스크, 저작권 굴레 벗다 - 법원, “포털 로고 · 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01. 7. 25 1면 1902호) /33
-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 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01. 8. 1 1면 1907호) /43
- 정통윤, 검열강화 - ‘구국의소리’ 구실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01. 8. 4 1면 1910호) /49
- <만화사랑방> 정통윤, 통신업체에 “니가 책임지고 인터넷 사이트 못오게 하쇼잉”(01. 8. 10 1면 1914호) /57
- <만화사랑방> 네티즌 방망이, “비열한 검열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01. 8. 17 1면 1916호) /61
-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를 - 정통윤, ‘불온’ 빌미 인터넷 검열(01. 8. 18 1면 1917호) /63
-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01. 8. 18 1면 1917호) /63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01. 8. 21 2면 1918호) /66
- 정통윤, ‘불건전 결정’ 회의록 공개거부 - ‘구국의소리’, 불건전 정보로 심의 · 결정(01. 8. 28 1면 1923호) /75
-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01. 9. 26 2면 1944호) /121
- <만화사랑방>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없애(01. 10. 12 1면 1953호) /139
-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 ‘욕설 · 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향의 원천봉쇄(01. 10. 12 2면 1953호) /140

-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01. 10. 16 1면 1955호) /143
-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01. 10. 19 2면 1958호) /150
- <논평> 인터넷 검열, 묵인할 수 없다(01. 10. 20 1면 1959호) /151
- 인터넷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01. 10. 23 1면 1960호) /153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인가(01. 10. 23 2면 1960호) /154
- 신종검열 · 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01. 11. 2 2면 1968호) /170
-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 ‘2001 아시아인터넷 권리 선언’ 채택(01. 11. 13 2면 1975호) /184
-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 디지털 말 이대성 씨, 통신방법 위반혐의 구속(01. 11. 5 2면 1977호) /188
-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존’ -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커뮤니티 폐쇄(01. 11. 17 1면 1979호) /191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농성 돌입(01. 11. 28 2면 1986호) /207
- 서울대, 전국연합 사이트 차단 - 전화 한 통화로 3개월 동안(01. 12. 6 1면 1992호) /219
- 검열반대 60일 릴레이 단식 마무리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01. 12. 21 2면 2003호) /248

언론의 자유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01. 9. 20 1면 1940호) /112

집회 · 결사의 자유

- 경찰, ‘시위피해’ 연출 들통 -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01. 7. 10 1면 1892호) /13
-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01. 7. 7 1면 1891호) /11
-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 김칠준 변호사, 레미콘 노조 인정 촉구 단식 중(01. 7. 17 1면 1897호) /23
- 울산노동자 5명 24일 전격체포 - 민주노총 간부 11명도 “소환하겠다”(01. 7. 25 2면 1902호) /34
-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 경찰, 이동권 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01. 7. 27 1면 1904호) /37
-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01. 9. 13 2면 1035호) /102
- ‘미 보복전쟁 반대’ 강제 진압 - 경찰, “민감한 때 기자회견 안 된다” 사전압력(01. 9. 18 1면 1938호) /108
-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01. 9. 21 2면 1941호) /115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회금지 통고 받아 -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01. 9. 27 1면 1945호) /122
-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01. 10. 10 2면 1951호) /136
-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 밀어내 -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01. 10. 26 1면 1963호) /159
- <만화사랑방> 유령집회신고(01. 11. 2 1면 1968호) /169
-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01. 11. 17 2면 1979호) /192
-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01. 11. 30 2면 1988호) /2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01. 7. 6 1면 1890호) /9
-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 파괴 발상 - 민중연대 등, 독소조항 개정요구(01. 7. 11 2면 1893호) /16
- <기획> 집회및시위의자유, 현주소 진단 ① “곳곳 집회금지구역, 집회할 곳 없다”(01. 9. 19 2면 1939호) /111

· <기획>집회및시위의자유, 현주소 진단 ② 집회금지조항, “결면 걸린다”(01. 9. 20 1면 1941호)	/114
· <기획>집회및시위의자유, 현주소 진단 ③ “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01. 9. 26 1면 1944호)	/120
· <기획>집회및시위의자유, 현주소 진단 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01. 9. 27 2면 1945호)	/123
· <기획>집회및시위의자유, 현주소 진단 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01. 9. 28 2면 1946호)	/125
·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01. 9. 28 2면 1946호)	/125
· “집시법, 한판 붙자 …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01. 10. 24 1면 1961호)	/155
·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 밀어내 -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01. 10. 26 1면 1963호)	/159
·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 고발(01. 10. 31 2면 1966호)	/166
·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01. 11. 2 1면 1968호)	/169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01. 11. 10 2면 1974호)	/182
·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01. 12. 19 1면 2001호)	/242

▷한총련 사건

·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채(01. 8. 7 1면 1911호)	/51
·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01. 8. 11 1면 1915호)	/59
·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01. 8. 21 1면 1918호)	/65
· 손준혁 전 한총련 의장 4년 선고(01. 10. 20 2면 1959호)	/152
· 8년 제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01. 11. 3 2면 1969호)	/172
·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01. 11. 30 2면 1988호)	/211

소수자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01. 11. 6 2면 1970호)	/174
--	------

이주노동자

· <기획>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⑥ 외국인 이전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 멈추자(01. 7. 4 2면 1888호)	/5
· 불법체류이주노동자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01. 7. 5 1면 1889호)	/6
· 필리핀 노동자, 한국의 ‘설움’ -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01. 8. 11 1면 1915호)	/59
·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 “수사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 위법”(01. 11. 3 2면 1969호)	/172
· <자료읽기>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01. 11. 29 1면 1987호)	/208
· 동포 차별 ‘재외동포법’ 위헌 - 현재, “정부수립 전 해외 간 동포 평등권 침해”(01. 11. 30 1면 1988호)	/210
·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01. 12. 9 1면 2001호)	/242
· <책읽기>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01. 12. 20 1면 2002호)	/245
·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01. 12. 22 1면 2004호)	/250

난민

·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01. 11. 8 1면 1972호)	/177
· <만화사랑방> 한국 가서 난민 신청하게 ‘서류 좀 발급해주세요’(01. 11. 9 1면 1973호)	/179

해외동포

· 조선적 입국차별 여전 - 주일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01. 11. 10 1면 1974호)	/181
·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 세번째 한국 입국한 리씨 사연(01. 11. 21 2면 1981호)	/196
· 국적전환 요구는 ‘제2사상전향’ - KIN, 주일대사관에 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01. 11. 21 2면 1981호)	/196
·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01. 12. 15 1면 1999호)	/236

여성

·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것이 내 꿈이에요(01. 11. 27 3면 1985호)	/205
·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01. 12. 14 1면 1998호)	/234
· <정화진의 인권이야기>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01. 12. 18 2면 2000호)	/239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01. 7. 24 2면 1901호)	/32
·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01. 7. 26 2면 1903호)	/36
·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01. 8. 21 2면 1918호)	/66

▷여성노동권

· 여성 근로기준 약화 -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01. 7. 19 1면 1898호)	/25
--	-----

어린이·청소년

· 재소자폭행 목인, 규율 잡기 -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사이 폭행 방치(01. 7. 3 1면 1887호)	/1
·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공포분위기 조성(01. 8. 21 1면 1918호)	/65
· 교칙, “금지·처벌·제한...” -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01. 10. 23 1면 1960호)	/153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01. 10. 24 2면 1961호)	/156
·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2여고 김모 학생(16세)(01. 10. 24 2면 1961호)	/156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② 학생회는 겁데기(01. 10. 26 2면 1963호)	/160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돼(01. 10. 31 2면 1966호)	/166
·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④(끝) 선도규정 :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01. 11. 2 2면 1968호)	/170
·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01. 11. 3 1면 1969호)	/171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01. 12. 6 1면 1992호)	/219

장애인

▷고용

- 장애인차별, 제천시장 퇴진요구 -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01. 11. 23 2면 1983호)/200

▷이동권

- “실효성있는 강제장치 마련할 때” -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01. 7. 21 2면 1900호) /30
-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 경찰, 이동권 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01. 7. 27 1면 1904호) /37
-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01. 7. 31 1면 1906호) /41
- “장애인 이동권 침해 배상하라” -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해소송(01. 8. 23 2면 1920호) /70
- “장애인 버스타기는 생존위한 것” - ‘이동권보장’ 요구, 시내버스 세우고 농성도(01. 8. 30 2면 1925호) /80
- “벌금내느니 감옥가겠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행위원장 수감(01. 9. 21 2면 1941호) /115
-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 목회자 벌금대납, ‘장애인 인권에 보다 관심필요’(01. 9. 26 2면 1944호) /121
- 장애인이동권연대 집회금지 통고 받아 -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01. 9. 27 1면 1945호) /122
- “버스 타는데 10초도 안 걸려!” - 제8차 이동권 집회 ‘저상버스’ 시승기(01. 11. 22 2면 1982호) /198

동성애자

-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01. 7. 4 2면 1888호) /5
-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 차별반대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01. 8. 1 1면 1907호)/43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01. 9. 4 2면 1928호) /88
-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존’ -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커뮤니티 폐쇄(01. 11. 17 1면 1979호)/191

국제

유엔인권기구

- <인권자료> A Guide to Human Rights :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01. 11. 22 1면 1982호) /197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

- (1)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 국가별 인권상황, 시민정치적 권리(01. 8. 11 2면 1915호) /60
- (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01. 8. 18 2면 1917호) /64

국제인권회의

▷인종차별철폐대회

-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 난민, 이주노동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등 쟁점(01. 7. 12 2면 1894호) /18
-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 세계화 ·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01. 7. 19 2면 1898호) /26
-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 울리는 계기되길” -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계획 밝혀(01. 8. 22 2면 1919호)/68

- 의노협등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 식민지배 청산,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01. 8. 25 2면 1922호) /74
-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① -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인류의 행진(01. 8. 30 2면 1925호) /80
-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문제 높은 관심 ... 서방국가들 소극적(01. 9. 5 2면 1929호)/90
- 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01. 9. 13 2면 1935호) /102

지역인권상황

▷아시아

- 버마망명의회, 국제사회 관심 호소(01. 7. 11 2면 1893호) /16
- 말레이시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01. 7. 14 2면 1896호) /22
-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01. 7. 28 2면 1905호) /40
- 십년 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01. 9. 1 2면 1927호) /86
- 아프가니스탄, 20여년의 고통 - 미국의 공습 압박, 상황 날로 악화(01. 10. 6 2면 1949호) /132
- “보복전쟁 · 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 한 · 일 단체들 반전 · 평화 한 목소리(01. 10. 10 2면 1951호) /136
- 무기 범람, 인권 재앙 - 미 · 러, 인권침해 알면서도 아프간 반군 군사원조(01. 10. 20 2면 1959호) /152
- <만화사랑방> 미국, 아프간 공습하면서 식량 공급 제스처(01. 10. 26 2면 1963호) /160
-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01. 11. 3 2면 1969호) /172

▷미국

- 무미아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펜실베이니아 주법원, 다시한번 검찰 손 들어줘(01. 8. 25 2면 1922호) /74
-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01. 9. 15 1면 1937호) /106
- 테러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01. 9. 15 2면 1937호) /107
- ‘미 보복전쟁 반대’ 목소리 진압 - 경찰, “민감한 때 기자회견 안돼” 사전압력(01. 9. 18 1면 1938호) /108
-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아프간민중 삶 악화 - 심각한 굶주림 뒤로 구호단체 출국(01. 9. 22 2면 1942호)/117
- 아프가니스탄, 20여년의 고통 - 미국의 공습 압박, 상황 날로 악화(01. 10. 6 2면 1949호) /132
-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강대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01. 10. 9 1950호) /134
- ‘반전 · 평화’ 염원 -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01. 10. 11 2면 1952호) /138
- ‘테러박멸’ 논리, 기본권 홀대 - 미국...감청 강화, 이민자 구금 · 추방 법안 추진(01. 10. 13 1면 1954호)/141
-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01. 10. 16 2면 1955호) /144
- <만화사랑방> 미국, 아프간 공습하면서 식량 공급 제스처(01. 10. 26 2면 1963호) /160
-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01. 11. 3 2면 1969호) /172

▷중남미

-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01. 8. 4 2면 1910호) /50

특별주제

국가기구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기획>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⑤ 인권교육! 국가정책 수립부터(01. 7. 3 2면 1887호) /2
-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01. 7. 3 2면 1887호) /2
- <기획>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⑥ 외국인 이전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 멈추자(01. 7. 4 2면 1888호) /5
-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01. 7. 4 2면 1888호) /5
- <기획>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⑦(끝) 인권위시대, 인권사회단체 역할은?(01. 7. 5 2·3면 1889호)/7·8
- “인권위원 검증 반드시 거쳐라” -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01. 7. 7 2면 1891호) /12
-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01. 7. 19 1면 1898호) /25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33개 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01. 7. 20 1면 1899호) /27
-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 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01. 8. 2 1면 1908호)/45
- 국가인권위원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01. 7. 20 1면 1908호) /45
- ‘인권단체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01. 7. 20 2면 1908호) /46
-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01. 8. 4 1면 1910호) /49
-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01. 8. 24 1면 1921호)/71
- <기획>한국감옥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 ‘국민감시’ 아래 교정시설(01. 8. 24 2면 1921호)/72
-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 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출범 희망”(01. 8. 25 1면 1922호) /73
- “국가인권위, 인권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 연대회의, 인권위 위해 적극 대처(01. 9. 12 2면 1934호) /100
-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01. 9. 28 1면 1946호) /124
- <논평> 헌법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01. 9. 29 1면 1947호) /126
- “밀실인선 지겹다” 1인 시위 -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01. 10. 5 1면 1948호) /129
-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01. 10. 6 2면 1949호)/132
-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01. 10. 9 1면 1950호) /133
- “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 청와대에선 위원 임명, 명동성당에선 인권단체 항의(01. 10. 10 1면 1951호)/135
- 인권위원명단(01. 10. 10 1면 1951호) /135
- “우리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 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01. 10. 31 1면 1966호) /165
-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01. 10. 31 1면 1966호) /165
-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중용 - 홈페이지 ‘비판게시물’ 문제삼아(01. 11. 23 1면 1983호) /199
-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01. 11. 24 1면 1984호) /201
-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 산적한 과제 안고 출범(01. 11. 27 1·2면 1985호) /203·204
-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01. 12. 8 2면 1994호) /226
-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01. 12. 11 1면 1995호) /227

시설수용자와 인권

▷에바다 사건

-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이사회 정상화 될 듯(01. 7. 12 2면 1894호) /18
-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01. 8. 8 2면 1912호) /54
-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01. 11. 6 1면 1970호) /173
-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 에바다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01. 11. 28 2면 1986호) /207

▷양지마을 사건

-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01. 9. 22 1면 1942호)/116

감옥·유치장 수용자와 인권

- 재소자폭행 목인, 규율 잡기 - 김천소년교도소, 재소자 사이 폭행 방치(01. 7. 3 1면 1887호) /1
- 치료라곤 진통제, 계보린... - 대전교도소, 암환자 방치...악화...형집행정지(01. 7. 4 1면 1888호) /4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① 소내 가혹행위 -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01. 7. 6 2면 1890호) /10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01. 7. 13 2면 1895호) /20
- “박영두폭행 가담·은폐자 처벌” - 인권단체연대회의 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01. 7. 20 1면 1899호) /27
- <기획>한국 감옥의 현실 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01. 7. 20 1면 1899호) /28
-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 헌법재판소, 수용시설 기준 제시(01. 7. 21 1면 1900호) /29
-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 김천·청송,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01. 7. 24 1면 1901호) /31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④, 작업과 교육 -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01. 7. 27 2면 1904호)/38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⑤ 식사와 구매 - “상한 야채면 어때!”(01. 8. 3 2면 1909호) /48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⑥ 민영교도소 - 종교계·사기업의 운영 바람직한가(01. 8. 10 2면 1914호) /58
-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01. 8. 10 2면 1914호) /58
-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⑦(끝) 인권위 시대 감옥 - ‘국민 감시’ 아래 교정시설(01. 8. 24 2면 1921호)/72
- 어느 청송 출소자의 재판 -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01. 10. 5 2면 1948호) /130
- 대구교도소, 재소자의 행정심판 서류폐기·2개월 징벌까지(01. 10. 17 1면 1956호) /145
- 행정심판이란?(01. 10. 17 1면 1956호) /145
-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01. 10. 24 1면 1961호) /155
- 안양·청송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 “고발장 제출 제지”(01. 10. 27 1면 1964호) /161
- 고법,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만 책임 물어(01. 10. 30 1면 1965호) /163
- 현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01. 12. 5 1면 1991호) /217

▷사회보호법

-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법원, “재범 위험성 개연성 높아야”(01. 10. 25 2면 1962호)/158
-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01. 10. 27 1면 1964호) /161
-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 원로 감정인 증언, 윤치고 씨 재판 새 국면(01. 11. 13 1면 1975호) /183

▷사망사건

- 교도소 내 사망 국가배상 -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01. 11. 14 2면 1976호) /186
- 벌금 못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 울산구치소 사망, "인권위에 진정하겠다"(01. 11. 24 1면 1984호) /201

신자유주의와 인권

- 제노아의 충돌, 반세계화 물결(01. 7. 21 2면 1900호) /30
- "반세계화 시위 살인진압 사죄" - 이태리 대사관앞 반세계화 집회, G8 해체 요구(01. 7. 26 1면 1903호)/35
- <인터뷰>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참가(01. 7. 26 1면 1903호) /35
-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01. 8. 18 2면 1917호) /64
- <기고>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류미경 - WTO뉴라운드 출범의 의미(01. 11. 17 2면 1979호) /192

▷민영화

-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01. 10. 12 1953호) /139
-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01. 11. 16 2면 1978호) /190
-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01. 12. 5 2면 1991호) /218
-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01. 12. 5 2면 1991호) /218
-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01. 12. 21 1면 2003호) /247

과거청산/불처벌

-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인정, '유서대필'은? - 강기훈 씨 사건 규명돼야(01. 7. 7 1면 1891호) /1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01. 9. 20 1면 1940호) /112

▷의문사

- "박영두폭행 가담·은폐자 처벌" - 인권단체연대회의 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01. 7. 20 1면 1899호) /27
-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01. 7. 21 1면 1900호) /29
-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 김천·청송,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01. 7. 24 1면 1901호) /31
-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있었다" - 지휘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검토(01. 9. 4 1면 1928호)/87
- '프락치'의 뒷에 걸린 김준배 씨(01. 9. 4 1면 1928호) /87
- 구타은폐, 프락치공작 공개 요구 - 경찰청 항의방문, 김준배씨 사망관련 서한 전달(01. 9. 5 1면 1929호)/89
-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01. 9. 8 1면 1932호) /95
- "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01. 12. 11 1면 1995호) /227
- <인권정보>공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증언 - 최종선(01. 12. 13 1면 1997호) /232
- <만화사랑방> 의문사진상규명백신 - 최종길 교수 자살조작 바이러스 발견(01. 12. 14 2면 1998호) /234

-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01. 12. 15 1면 1999호) /236
-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 돌입(01. 12. 18 1면 2000호) /238
- <인터뷰>유가족 허영춘 지회장 - "의문사위원장, 녹화사업은 정훈교육?"(01. 12. 21 2면 2003호) /248

테러방지법

-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예고 -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 통과로 돌진(01. 11. 15 1면 1977호) /187
- "테러, 경찰 힘으로도 방지" - 테러방지법 졸속 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01. 11. 16 1면 1978호) /189
- <만화사랑방>테러방지법 ... "반지건 목걸이건 간에 상관없습!"(01. 11. 16 1면 1978호) /189
- 긴급 인터뷰 :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 울산대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01. 11. 16 2면 1978호)/190
-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01. 11. 17 1면 1979호) /191
-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01. 11. 20 2면 1980호) /194
-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01. 11. 21 1면 1981호) /195
-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01. 11. 22 1면 1982호) /197
-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01. 11. 23 2면 1983호) /200
-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01. 11. 24 2면 1984호) /202
-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 촉구 -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01. 11. 28 1면 1986호) /206
- 테러방지법 입법반대 국회청원 - 법안저지 활동 다각화, 반대여론도 확산(01. 11. 29 1면 1987호) /208
-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 사회단체,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01. 12. 1 1면 1989호) /213
-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01. 12. 4 2면 1990호) /216
-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01. 12. 5 2면 1991호) /218
-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01. 12. 5 2면 1991호) /218
-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01. 12. 8 2면 1994호) /226

인권교육

- <기획> 국가인권위 시대를 대비하자⑤ 인권교육! 국가정책 수립부터(01. 7. 3 2면 1887호) /2
-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01. 7. 3 2면 1887호) /2

평화

- <정육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01. 8. 17 2면 1916호) /62
- <정육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 (01. 9. 11 2면 1933호) /98
-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01. 9. 15 1면 1937호) /106
- 테러사건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 - 성급한 군사행동 반대...문명적 대응 촉구(01. 9. 15 2면 1937호) /107
- '미 보복전쟁 반대' 진압 - 경찰, "민감한 때 기자회견 허용 안 한다" 사전압력(01. 9. 18 1면 1938호) /108
-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아프간 민중 삶 악화 - 굶주림 뒤로 구호단체들 출국(01. 9. 22 2면 1942호) /117
- '전쟁반대! 전쟁지원도 반대!' - 민중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제2차 연대집회(01. 9. 27 1면 1945호) /122
-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01. 10. 10 2면 1951호) /136
- '반전·평화' 염원 - 765개 사회단체 시국선언(01. 10. 11 2면 1952호) /138

· <정육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01. 10. 16 2면 1955호)	/144
· 무기 범람, 인권 재앙 - 미·러, 인권침해 알면서도 아프간 반군 군사원조(01. 10. 20 2면 1959호)	/152
· 어린이와 함께 반전평화 서명을!(01. 11. 1 1면 1967호)	/167
·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01. 11 9 2면 1973호)	/180
·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 사회단체,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01. 12. 1 1면 1989호)	/213

국내·외 인권단체

· '건강한 노동·건강한 세상' - 노동건강연대 창립(01. 7. 7 2면 1891호)	/12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33개 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01. 7. 20 1면 1899호)	/27
·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01. 8. 8 2면 1912호)	/54
· 정보운동 강좌 '정보운동과 인권' - 진보넷, "지배적 정보화, 인권으로 맞서겠다"(01. 8. 30 1면 1925호)	/79
· 서준식 대표 사임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01. 8. 30 별지 1925호)	/81
·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시민인권상 수상(01. 9. 22 2면 1942호)	/117

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 ⑤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01. 7. 3 2면 1887호)	/2
·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01. 7. 3 2면 1887호)	/2
· ⑥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01. 7. 4 2면 1888호)	/5
·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01. 7. 4 2면 1888호)	/5
· ⑦(끝)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01. 7. 5 2·3면 1889호)	/7·8

▷한국 감옥의 현실

· ① 소내 가혹행위 -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01. 7. 6 2면 1890호)	/10
· 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01. 7. 13 2면 1895호)	/20
· ③ 머리 아파도, 배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약 - 재소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01. 7. 20 1면 1899호)	/28
· ④ 작업과 교육 -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01. 7. 27 2면 1904호)	/38
· ⑤ 식사와 구매 -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나나?"(01. 8. 3 2면 1909호)	/48
· ⑥ 민영교도소 -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01. 8. 10 2면 1914호)	/58
·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01. 8. 10 2면 1914호)	/58
· 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 '국민의 감시' 밑으로 들어오는 교정시설(01. 8. 24 2면 1921호)	/72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 ① 대송택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01. 9. 12 1면 1934호)	/99
· ② 7천 해고자에게 달한 '대화의 문'(01. 9. 13 1면 1935호)	/101
· ③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01. 9. 14 2면 1936호)	/104
·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01. 9. 14 2면 1936호)	/10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 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01. 9. 19 2면 1939호)	/111
· ② 집회금지조항, "결면 걸린다"(01. 9. 20 1면 1941호)	/114
· ③ "허위·위장 집회가 판친다"(01. 9. 26 1면 1944호)	/120
· 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01. 9. 27 2면 1945호)	/123
· 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01. 9. 28 2면 1946호)	/125
·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01. 9. 28 2면 1946호)	/125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01. 10 24 2면 1961호)	/156
· <인터뷰> 캠페인에 참여한 고등학생 2여고 김모 학생(16세)(01. 10 24 2면 1961호)	/156
· ② 학생회는 껌데기(01. 10. 26 2면 1963호)	/160
· ③ 용의복장, 속옷 색깔도 맘대로 안돼(01. 10. 31 2면 1966호)	/166
· ④ (끝) 선도규정 :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01. 11. 2 2면 1968호)	/170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 '문민적' 인권개선, 짝수 노오랬다(01. 12. 11 3면 1995호)	/229
② 1994년을 돌아본다! -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01. 12. 12 2면 1996호)	/231
③ 1995년을 돌아본다! -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01. 12. 13 2면 1997호)	/233
④ 1996년을 돌아본다! -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01. 12. 14 2면 1998호)	/235
⑤ 1997년을 돌아본다! -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01. 12. 15 2면 1999호)	/237
⑥ 1998년을 돌아본다! -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01. 12. 20 2면 2001호)	/246
⑦ 1999년을 돌아본다! -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01. 12. 21 3면 2003호)	/249
⑧ 2000년을 돌아본다! -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01. 12. 22 2면 2004호)	/251
⑨ 2001년을 돌아본다! - 공안세력의 부활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01. 12. 25 2면 2005호)	/253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인권(01. 12. 11 3면 1995호)	/229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01. 12. 12 2면 1996호)	/230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01. 12. 13 2면 1997호)	/233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01. 12. 14 2면 1998호)	/235

⑤ 노동권(01. 12. 15 2면 1999호)	/237
⑥ 인권교육(01. 12. 18 3면 2000호)	/240
⑦ 여성의 인권(01. 12. 19 2면 2001호)	/243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01. 12. 20 2면 2002호)	/246
⑨ 과거 청산(01. 12. 21 3면 2003호)	/249
⑩ 동성애자 인권(01. 12. 22 2면 2004호)	/251
⑪ 장애인 인권(01. 12. 25 2면 2005호)	/253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01. 12. 18 3면 2000호)	/240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②(01. 12. 19 2면 2001호)	/243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①(01. 12. 18 4면 2000호)	/241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01. 12. 19 3면 2001호)	/243
<종간호>"90년대 인권운동 최대화두" - 가라! 국가보안법...오라! 국가인권위(01. 12. 27 1면 2006호)	/254

인권하루소식 고정란

인권10대뉴스

·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01. 12. 7 2~4면 1993호)	/222~224
· <만화> '산타'와 루돌프의 좌충우돌 2001년 인권 10대뉴스(01. 12. 27 3면 2006호)	/256

논평

·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01. 7. 7 1면 1891호)	/11
·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01. 7. 14 1면 1896호)	/21
· 김의식, 김명경을 파면하라(01. 7. 21 1면 1900호)	/29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삼미특수강 관련 판결에 대해(01. 7. 28 1면 1905호)	/39
·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01. 8. 4 1면 1910호)	/49
·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01. 8. 11 1면 1915호)	/59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01. 8. 18 1면 1917호)	/63
·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01. 8. 25 1면 1922호)	/73
· '노동통제 CCTV'를 철거하라(01. 9. 1 1면 1927호)	/85
· 정윤기 감사의 출두거부(01. 9. 8 1면 1932호)	/95
·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01. 9. 15 1면 1937호)	/106
·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01. 9. 22 1면 1942호)	/116
·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01. 10. 6 1면 1949호)	/131

·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건강권(01. 10. 13 1면 1954호)	/141
·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01. 10. 27 1면 1964호)	/161
·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01. 11. 3 1면 1969호)	/171
· 자유인의 긍지 위에 선 대학을 창조하라(01. 11. 10 1면 1974호)	/181
·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01. 11. 17 1면 1979호)	/191
·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01. 11. 24 1면 1984호)	/201
·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01. 12. 1 1면 1989호)	/213
· 인권의 날을 맞아(01. 12. 8 1면 1994호)	/22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01. 12. 15 1면 1999호)	/236
·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01. 12. 22 1면 2004호)	/250

인권이야기

·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김혜란(01. 7. 3 3면 1887호)	/3
·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신윤동욱(01. 7. 10 2면 1892호)	/14
·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장여경(01. 7. 24 2면 1901호)	/32
·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발전산업노조 ... 김혜란(01. 7. 31 2면 1906호)	/42
· 60억 개의 양심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신윤동욱(01. 8. 7 2면 1911호)	/52
·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정옥식(01. 8. 17 2면 1916호)	/62
·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장여경(01. 8. 21 2면 1918호)	/66
·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김혜란(01. 8. 28 2면 1923호)	/76
· '뻔뻔한' 귀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 신윤동욱(01. 9. 4 2면 1928호)	/88
·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될 ... 정옥식(01. 9. 11 2면 1933호)	/98
·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장여경(01. 9. 18 2면 1938호)	/108
·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김혜란(01. 9. 25 2면 1943호)	/119
· 강패국가는 아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신윤동욱(01. 10. 9 1950호)	/134
·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정옥식(01. 10. 16 2면 1955호)	/144
·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인가 ... 장여경(01. 10. 23 2면 1960호)	/154
·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김혜란(01. 10. 30 1면 1965호)	/164
· 낯선 길을 찾아 가보기 ... 신윤동욱(01. 11. 6 2면 1970호)	/174
·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류은숙(01. 11. 20 2면 1980호)	/194
· 목욕탕 카운터를 보는 것이 내 꿈이에요 ... 최정민(01. 11. 27 3면 1985호)	/205
·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이계수(01. 12. 4 2면 1990호)	/216
·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류은숙(01. 12. 11 2면 1995호)	/228
· 공인vs사생활 혹은 비아그라vs최음제 ... 정희진(01. 12. 18 2면 2000호)	/239

만화사랑방

· "불법체류자들을 잡아라!!"(01. 7. 6 1면 1890호)	/9
· 장마철 '집시법' 집구석... 참가인원 제한 추진, 10분초과 구속, 10명초과 집회해산(01. 7. 13 1면 1895호)	/19

· 감옥의문사 진상 - '구타'에 의한 사망이랍니다(01. 7. 20 1면 1899호)	/27
· G8, 그들은 지구를 향해 총을 쏘다... 태양!(01. 7. 27 1면 1904호)	/37
· 법원 먹구름, 삼미특수강 노동자에만 비 뿌려(01. 8. 3 1면 1909호)	/47
· 정보통신윤리위, 통신업체에 "니가 책임지고 인터넷 사이트 못오게 하쇼잉"(01. 8. 10 1면 1914호)	/57
· 네티즌 방망이, "비열한 검열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01. 8. 17 1면 1916호)	/61
· 조중동, 남북최초민간교류 물어뜯기(01. 8. 24 1면 1921호)	/71
· 국가정보원, 아직도 불법사찰을! ... 노래단체 '우리나라'(01. 8. 31 1면 1926호)	/82
· 구사대, "레미콘 노동자' 패는 중이외다"(01. 9. 7 1면 1931호)	/93
· 미국을 지킬 자, 누구인가?(01. 9. 14 1면 1936호)	/103
· 조선일보, 영화 '애기섬' 색깔 시비(01. 9. 21 1면 1941호)	/114
· 신부와의 약속 어기고, 정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01. 10. 5 1면 1948호)	/129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없애(01. 10. 12 1면 1953호)	/139
· 피의자 접견권 묵살해온 국가정보원, 배상 결정(01. 10. 19 1면 1958호)	/149
· 미국, 아프간 공습하면서 식량 공급 제스처(01. 10. 26 2면 1963호)	/160
· 유령집회신고(01. 11. 2 1면 1968호)	/169
· 한국 가서 난민신청하게 '서류 좀 발급해주세요'(01. 11. 9 1면 1973호)	/179
· 테러방지법 ... "반지건 목걸이건 간에 국민들 옥죄는 거면 상관없슈!"(01. 11. 16 1면 1978호)	/189
· "내 지문 내놔!"(01. 11. 23 1면 1983호)	/199
· 한나라당사앞 "쌀값보장! 주5일근무!"(01. 11. 30 1면 1988호)	/2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낮은 최저생계비에 절망한 장애인(01. 12. 7 1면 1993호)	/221
· 의문사진상규명백신 - 최종길 교수 자살조작 바이러스 발견(01. 12. 14 2면 1998호)	/234
·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군, "조국을 지키는 길이 하나 뿐인가요?"(01. 12. 21 1면 2003호)	/247
· '산타'와 루돌프의 좌충우돌 2001년 인권 10대뉴스(01. 12. 27 3면 2006호)	/256

인권정보자료

·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 자료집 I·II(01. 9. 5 1면 1929호)	/89
· 정보통신정책 자료집(01. 9. 18 1면 1938호)	/108
· 양심적 병역거부(01. 10. 11 2면 1952호)	/138
·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2 - 여성의 눈으로 노동운동사 재서술(01. 10. 18 1면 1957호)	/147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01. 10. 25 1면 1962호)	/157
·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01. 11. 8 1면 1972호)	/177
· '통계로 보는 인권 -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01. 11. 15 1면 1977호)	/187
· A Guide to Human Rights : Institutions, Standards, Procedures(01. 11. 22 1면 1982호)	/197
·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01. 11. 29 1면 1987호)	/208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 캠페인 결과보고서(01. 12. 6 1면 1992호)	/219
· 공포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증언 - 전 중앙정보부원의 양심선언(최종선)(01. 12. 13 1면 1997호)	/232
· 인간답게 노동하고 싶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01. 12. 20 1면 2002호)	/245

주간인권흐름

·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01. 7. 3 3면 1887호)	/3
· 2001년 7월 2일 ~ 7월 8일(01. 7. 10 2면 1892호)	/14
· 2001년 7월 9일~7월 16일(01. 7. 17 2면 1897호)	/24
· 2001년 7월 16일~7월 23일(01. 7. 24 2면 1901호)	/32
· 2001년 7월 23일~7월 30일(01. 7. 31 2면 1906호)	/42
· 2001년 7월 30일~8월 6일(01. 8. 7 2면 1911호)	/52
· 2001년 8월 6일~8월 20일(01. 8. 21 2면 1918호)	/66
· 2001년 8월 20일~8월 27일(01. 8. 28 2면 1923호)	/76
· 2001년 8월 27일~9월 3일(01. 9. 4 2면 1928호)	/88
· 2001년 9월 3일~9월 10일(01. 9. 11 2면 1933호)	/98
· 2001년 9월 10일~9월 17일(01. 9. 18 2면 1938호)	/109
· 2001년 9월 17일~9월 24일(01. 9. 25 2면 1943호)	/119
· 2001년 9월 24일~10월 8일(01. 10. 9 2면 1950호)	/134
· 2001년 10월 8일~10월 15일(01. 10. 16 2면 1955호)	/144
· 2001년 10월 15일~10월 22일(01. 10. 23 1960호)	/154
· 2001년 10월 22일~10월 29일(01. 10. 30 2면 1965호)	/164
· 2001년 10월 30일~11월 5일(01. 11. 6 2면 1970호)	/174
· 2001년 11월 6일~11월 12일(01. 11. 13 2면 1975호)	/184
· 2001년 11월 12일~11월 19일(01. 11. 20 2면 1980호)	/194
· 2001년 11월 20일~11월 26일(01. 11. 27 3면 1985호)	/205
· 2001년 11월 26일~12월 3일(01. 12. 4 2면 1990호)	/216
· 2001년 12월 4일~12월 10일(01. 12. 11 2면 1995호)	/228
· 2001년 12월 11일~12월 17일(01. 12. 18 2면 2000호)	/239

이달의 인권

· 2001년 7월(01. 8. 1 2면 1907호)	/44
· 2001년 8월(01. 8. 31 2면 1926호)	/83
· 2001년 9월(01. 9. 29 2면 1947호)	/127
· 2001년 10월(01. 11. 1 2면 1967호)	/168
· 2001년 11월(01. 12. 1 2면 1989호)	/214
· 2001년 12월(01. 12. 27 2면 2006호)	/255

<인권하루소식> 합본 17호

펴낸 날 : 2002년 3월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 02-741-5363 / 팩스 : 02-741-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값 1만원